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공·민·생·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인현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망장 광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음 1월 25일) 제20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마련 관련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 도내 국회의원, 노동조합, 협력업체, 시민단체 등 전북도민 4000여명이 한마음이 되어 서울로 상경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국GM군산공장 정상화 촉구 구호를 외치며 전북도민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한국GM 군산공장 정상가동하라”

# 전북 경제 일변지인 군산의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올해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5만 명의 도민이 길거리로 나왔게 생겼다

전북경제가 붕괴직전으로 정부는 약속한대로 죽어가는 전라북도와 군산시를 살려내라

지난 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공원 앞에 모인 4,000여명의 전북도민들은 눈물 섞인 한 목소리로 지역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지역경제가 반토막난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13일 한때 전북수출 30%를 차지했던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결정이 나자 4,000여명의 전북도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범도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것.

이들 전북도민은 지난 9일 서울 세종공원 앞에서 군산공장 근로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정상가동을 촉구했다.

### 전북도민들, 서울서 총궐기

한국GM 행태 비판... 송 지사 “더 이상 좌시 않을 것”  
문동신 군산시장 “경영 정상화에 모든 역량 모으자”

또 이날 집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최정호 전북도 정부부지사, 박정희 시의회의장, 김관영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각 정당 대표단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한국GM의 일방적인 행태에 목소리를 높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0만 전북도민은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최악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지난 20여년동안 GM을 가족처럼 여긴 30만 군산시민들의 등에 비수를 찌른 것”이라며 “죽는다는 각오로 군산공장 경영정상화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에 대해 한국GM 재정지원은 군산공장 정상 가동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실직 근로자들의 복직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생계 등의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20만5,0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 전달을 병행하여 추진, 한국GM 본사는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전북도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5개 정당 각 대표들에게 전달하여 2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궐기대회를 마치고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세종로공원에서부터 청와대 앞까지 1.1km구간의 시가행진을 진행하며 주변 정부청사 및 주한미국대사관, 청와대 등을 향해 강력한 목소리로 군산공장 정상가동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꾸준히 GM차 사주기 운동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과 연계해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회사 측은 지난 2월 13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 매일 INDEX

4면 - 운두레·아파트공동체 육성

6면 - 수출 호조에 투자증가세 지속

### 열흘간의 각본 없는 감동 드라마

## 평창 동계패럴림픽 ‘팡파르’

설상·빙상으로 나눠 진행... 폐회식은 18일



전 세계 장애인들의 지구촌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2018평창동계 패럴림픽대회’가 지난 9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열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북한을 포함해 49개 나라에서 참가한 570명의 선수들은 설상과 빙상 6개 종목 80개 세부종목별 경기에 출전해 각본 없는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개최국 대한민국은 6개 전 종목에 36명의 선수가 출전해 패럴림픽 사상 첫 금·은메달 각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의 종합 10위 성적을 달성할 목표 달성 도전에 나섰다. 개최식은 평창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대회 주 개최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올림픽스타

디움’에서 오후 7시~9시50분 사 전문화공연과 본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화보 16면> 폐회식도 오는 18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열린다. 대회 경기는 설상과 빙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설상종목은 평창 마운틴클러스터에서, 빙상종목은 강릉코스탈클러스터에서 열린다. 종목별로는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는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치러진다. 휠체어컬링과 아이스하키는 강릉컬링센터와 강릉하키센터에서 개최된다. 평창패럴림픽조직위에 따르면 평창 방문자 수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선수단 임원, 대회 관계자, 미디어 등 분야에서 2만 5000여명이다. /뉴시스

### 북미정상회담 성사...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

## 北 김정은 대화 초청 수락 美 트럼프 “5월까지 만나고파”

### 정의용 안보실장 브리핑... 외신 “한국 정부 모책 촉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화에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정 실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최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3면> 그는 “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이 “북한은 향후 어떤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그만둘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경제 및 외교적으로 최대 압박을 가해온 미국 전략의 성과물일 수 있지만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모책이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